

자기소개서

소 속	〇〇초등학교	직 위	〇〇	성 명	〇〇〇
-----	--------	-----	----	-----	-----

교사로서 배움과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온 길

독서와 만남을 통해 성장하다.(1993~1996년)

1989년 전교조 출범, 1990년 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생 우선 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을 겪으며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교육대학교를 보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극대화 될 때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붕괴가 한창일 때다. 이 시기에 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도시로, 특히 수도권으로 갈까?”

나의 이런 질문은 임용고시를 경기도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993년 10월 중간 발령으로 인해 첫 발령을 강화의 〇〇초등학교로 받게 됩니다. 강화도는 섬이지만 다리가 놓아진 섬으로 잠자리에 들면 북한의 대남 방송이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경험하며, 도시화라는 시류에 몸을 맡기며 수도권의 도시 생활을 탐구하고자 했던 나는 이곳에서 마땅한 할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임지인 이곳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독서와 만남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동료 그리고 좋은 선배교사와의 만남으로 나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한 뒤에 할 일이 없던 나는 조그만 읍내에 하나 있었던 ‘강화서점(청운서림)’ 나들이라는 취미를 갖게 되고, 교육에 대한 평생의 철학을 갖게 되는 소중한 책들과 만났습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학급문집’ ‘어린이도서연구회’ ‘창의성’ ‘셀프리더쉽’ ‘등과 다양한 인문학 관련 책들을 읽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독서는 나를 학부모 독서동아리 조직(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 학급 문집 만들기, NIE 교육 실천, 열린교실을 통한 수업 개혁 연수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육대학교(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춘천, 교원대, 전주)에서 온 젊은이들과 만나며 학교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도시 근로자의 삶을 느끼다.(1997년~1999년)

1997년, 강화도에서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 벽지나 접적지 점수가 있는 곳으로 학교를 옮기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인천 〇〇초등학교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 학교는 인천의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대도시 근로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년이 9학급이며 오전반 오후반으로 교실을 쓰는 학교에서 도시 근로자의 자녀들은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50여명 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생활하며 일어나는 사건은 나를 더 좋은 교사가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때의 시간

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어떻게 사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고민의 시작 속에서 새롭게 만나다(1999년 ~ 2001년)

1999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내게 많은 혼란을 줬습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학교 교무행정 분위기가 달랐듯이 전라북도의 교무행정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저는 신규교사처럼 새롭게 적응하였습니다. 이때 만난 제자들은 인천에서 만나 도시근로자와 다른 도시근로자들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며 들었던 말 중에

“내년에도 우리 아이 담임해주세요(이00학생 어머니)” “나이도 젊고 아직 학부 모도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특별하다(강00선생님)” “선생님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감사해요(임00학생)”은 내가 어떤 교사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간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힘쓰는데 집중했다면 ‘학교의 본질에 대한’ 고민하고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 혁신 활동을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지역사회학교 구축과 학교내 교육공동체 회복 활동(2004년-2013년)

2004년 공교육에서 대안을 찾고자 ○○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임실에서 2년을 지낸 뒤에 갑자기 이루어진 인사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지만, 5년 동안의 ○○초등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지금까지의 교직생활 중에서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 5년을 마치고 다시 임실로 와서 ○○초등학교에서 농촌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실지역 시민단체인 ‘임실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교육분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임실에서의 교육희망을 찾고자 2012년 ○○초등학교로 옮겨 혁신학교를 일구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문화 관련 활동 참여(2004년~2013년)

학교밖 활동은 교사의 시야를 확장하는데 중요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흐름을 파악할 때 교직이 더욱 알차질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나 ○○만들기 등의 시민단체에 회비를 내는 수동적인 참여 뿐 아니라, 운영위원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문화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학생 인성 교육을 위한 활동(2004년 ~ 2013)

한국리더십센터 전주교육원의 유치원 초등학교 프로그램인 <벼리와 큰돌> 프로

그램의 자문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성품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주삼우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학생 인성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한국리더십센터 전주교육원과 공동 연구를 하여 초등학교용 키즈 플래너 <날마다 나를 적는 이야기>를 출판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셀프 리더십을 강화하여 자기 관리에 힘을 써서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 현실을 극복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두레활동, 뚝활동)을 조직하고 이를 통한 인성 교육으로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과 꿈을 키우는 활동을 구안 적용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자치문화활동으로써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실천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매주 운영합니다.

교육전문직원 · 교감으로서 학교를 지원하며 살아온 길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다.(2014년 ~ 2017)
2014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혁신교육특구를 담당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에 근무하며 학교혁신 제도 개선에 노력하다.(2018년 ~ 2019.8)
2018년부터는 도교육청 ○○과에 근무하며 혁신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직속기관에 근무하며 지역교과서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하다(2019.9 ~ 2021.8)
2019년 9월부터는 직속기관에 발령을 받아서 지역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에 참여했으며, 또한 지역교과서를 기획하여 편찬, 연구대회를 관리하는 등의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초에 근무하며 작은학교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다(2021.8 ~ 2022)
2021년 9월에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아서 작은학교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